

바둑

거침없는 백홍석 “이세돌 비켜라”



광주 출신, 작년 ‘승률왕·신인왕’ 등극 무명 설움 벗어 경험 풍부·기량 쑥쑥...호남바둑 차세대 주자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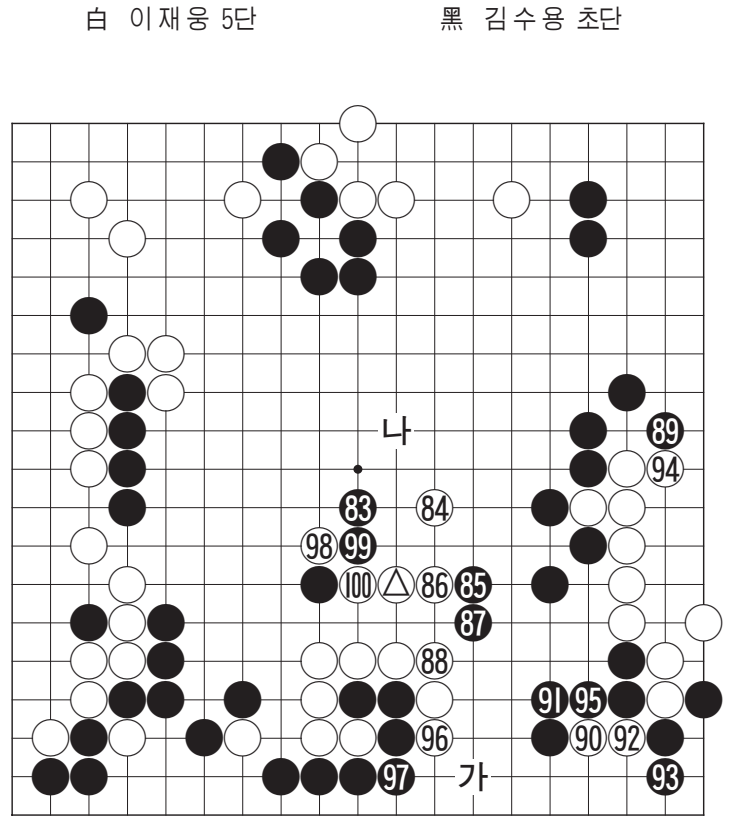
광주 출신인 백홍석(21) 5단이 자신의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해 말 신에 프로 10결전에서 생애 처음으로 정상을 밟은 백 5단은 최근 비씨카드 배에서도 결승에 진출, 신에 기전 2관왕을 노리는 등 한국 바둑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 5단은 이같은 활약을 통해 자신을 이세돌의 뒤를 이을 호남 바둑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에기전 2관왕을 노리고 있지만 그가 노리는 대회는 제한기전이 아닌 정규기전이다. 그는 “지난해 신에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전체 프로기사들이 기력을 다투는 정규 대회 우승이 꿈이다”며 “올해는 세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한다.

단 당시 빼어난 기재를 선보였으나,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빛을 보고있다. 그는 지난해 삼성화재배 4강 진출, SK가스배 신에프로10결전 우승과 함께 ‘승률왕(승률77%)’과 ‘신인왕’을 거머쥐면서 무명의 설움을 벗고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백 5단의 거침없는 질주에 ‘야전 사령관’ 서봉수 9단이 두번이나 고개를 떨치고, ‘센돌’ 이세돌 9단도 항서를 바쳐야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16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위시허 9단을 꺾은 데 이어 11월 열린 8강전에서 위민 9단을 꺾고 당당히 세계 4강에 진출했다.

입했다. 그는 지난 2월에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준결승전에서 ‘독사’ 최철한 9단을 256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정상권의 기량을 과시했다. 프로기사들도 백홍석 5단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은 “백 5단이 수입기에 밝은 데다 전문적인 기풍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기사다”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9단은 “백 5단은 프로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데다 기량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5단의 성실성도 현재 보다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는 한눈 팔지 않고 바둑 공부에만 매달리는 ‘외교기사’로 꼽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기 SK가스배 프로10결전 신수를 빼앗은 묘수 7보(83~100)



이제용 5단은 활로가 열리자 기분이 좋아진 듯인지 무심코 백 8로 뛰어 나갔는데 이 수가 또 무책의 수로, 김수용 5단의 호된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백 1로 붙이는 것이 수습의 맥으로 5까지라면 ‘A’의 약점도 있어 거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흑 83의 공격이 강력해져서는 백 대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김수용군은 흑 87까지 선수를 다음 89를 선수했는데 이 수로는 계속 해서 ‘나’로 공격해야 했다. 이재용 군이 참나의 여지를 틈타 90으로 집을 단재간 것이 선수를 빼앗아온 호수로 흑 95의 보장이 불거피 하다. 95를 손배면 당장 ‘참고도2’의 백 1로 찌는 수가 성립한다. 흑 2에는 3으로 끊어 어떻게 두더라도 7까지 수가 난다. 위기의 순간엔 묘수를 찾아내 선수를 빼앗은 이재용 5단이 백 98로 붙여 역습을 노리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김동엽 9단 ‘지지옥선배’ 본선 막차 탔다

시니어·여자 대표 각각 12명 확정 김동엽 9단이 제1회 지지옥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회에서 마지막 본선 티켓을 획득했다. 김동엽 9단은 지난 26일 성동구 흥익동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예선 결승전에서 정수현 9단을 백 1집반차로 꺾고 본선에 진출, 시니어 대표와 여자 대표 12명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기전 사상 최초의 ‘성대결’인 지지옥선배는 만 45세 이상인 시니어 기사 12명과 여류기사 12명이 오는 4월4일부터 연승전 방식으로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전체적인 전력은 ‘바둑황제’ 조훈현 9단과 서봉수 9단 등이 버티고 있는 시니어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시니어와 여자기사 간의 상대적 격차는 여자가 오히려 89승 72패로 앞서 광범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자 기사 대표 중에는 루이나이웨이, 조혜연, 박지은, 김혜민으로 이어지는 시드 4인방과 정관장배의 ‘바둑퀸’ 이민진의 활약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전문기업 (주)지지옥선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의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이다. 연승을 달성하면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의 연승상금이 추가된다. ▲출전선수 명단 △시니어팀=조훈현 9단, 서봉수 9단, 오규철 9단, 이홍열 9단, 김수장 9단, 정대상 9단, 김동엽 9단, 김일환 9단, 장수영 9단, 권갑용 7단, 김준준 5단, 김석희 3단 △여자팀=루이 나이웨이 9단, 조혜연 7단, 박지은 7단, 이민진 5단, 이영선 4단, 김혜민 4단, 김은선 3단, 윤영민 2단, 김수진 2단, 박지희 2단, 고주연 1단, 박지연 1단.



바둑 두는 北 유치원생들 북한 평양바둑일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평양시 어린이바둑기술학성경기(유치원 부문)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어린이들. 이 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선중앙TV촬영>/연합뉴스

윤준상, 12일만에 5단→6단 승단 ‘진기록’

국수 윤준상이 5단 승단 12일 만에 6단으로 뛰어올랐다. 한국기원은 지난 20일에 열린 물가정보매 1차 예선 결과 윤준상이 승단 규정점수를 채웠기 때문에 6단으로 승단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로써 윤 6단은 지난 3월 16일 이창호 9단을 누르고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며 5단으로 승단한 뒤 불과 12일 만에 한계단을 또 오르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한국기원은 국내 전체기사가 참여하는

기전의 1차 예선 결과를 승단점수에 반영한다. 이 밖에 타이틀전 우승에 따른 특별 승단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계대회 우승=3단 승단 ▲국내 3대기전 (강원랜드배, GS칼텍스배, 전자랜드배) 우승=2단 승단 ▲국내 본경기전 우승=1단 승단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성래 4단 ‘21세기 신 정석과 포석’ 출간

김성래 4단이 ‘21세기 신(新) 정석과 포석’을 출간했다. ‘21세기 신’은 지난 2000년 이후 등장한 대표적인 신형 바둑 스타일 17개를 분석하고 있으며, 프로 실전기보 161개의 초반전을 사례로 들어 신형 포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1부에서는 정석, 2부에서는 정석과 포석, 3부에서는 초반전의 변화로 구성돼 있다. ‘21세기 신’은 한국과 미국(영어판)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이다. 김 4단은 지난 96년 입단한 뒤 2002년 ‘한국고대바둑보급에 대한 연구’로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부광공인중개사 (주) (064)654-4520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금보부동산컨설팅 011-602-2233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전원주택 분양 대행 부동산서비스

다인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서비스

금보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서비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부동산서비스

현대공인중개사 부동산서비스

옥션코리아 법원경매 부동산서비스